

ㄹ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세상의 취향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성경말씀: 시19:7-10

왜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요4:22-24).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시29:2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를 규정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요즘 다수 목사들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만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 교회 성장 세미나 등 유행, 미국도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특히 현시대 상황에 맞추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적절하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없이 멀리 나아갈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불경하고 별난 것이라도 기독교 용어와 융합하여 '예배'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것 같다. 정말이지 유행에 관해서는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것이 없다.

19세기 중후반, 찰스 스펠전(Charles Spurgeon)은 그 당시에, 교회가 근대 시대에 어울리려면 당시 빅토리아 여왕 시대(1867-1901)의 문화를 따르고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회지도자들과 충돌했다. 다양한 음악, 연극, 오락의 발전, 이런 것들을 교회 문화에 도입해야 한다.

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적어도 150년 동안 세속적인 유행을 받아들여 왔다. 스펠전의 시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회에 유입되는 세속적인 유행과 활동이 해마다 점점 더 기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나는 Los Angeles Times Magazine에서, 현실과 연관성을 가지려고 애쓰는 남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 대한 기사를 오려 두었다. 그 교회 목사는 컨트리 음악 마니아였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컨트리앤드웨스턴(country and western) 문화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 교회는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컨트리음악이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광고하는 전단지들을 뿌렸다. 그 전단지는 과감하게 '예배 후 라인댄스' 시간을 약속했다. 기사에 의하면 "목사도 카우보이 부츠에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춤을 춘다"고 한다. 그 목사는 그 캠페인이 자기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 믿었다. 기사에서는 그 교회의 일반적인 주일 아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런 장면이 단지 어느 무명 교회 또는 특이한 교회의 일탈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현재 교회성장 이론은 그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실제로 미국의 '바이블 벨트'(Bible Belt, 기독교가 강한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대_역주) 중심부에 있는 가장 크고 유명한 어느 교회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주일 저녁예배 광고가 붙어 있었다.

"서커스 서커스의 마술사 바넘과 베일리가 흥미진진한 모임으로 초대합니다! 광대들, 곡예사들, 동물들, 팝콘! 얼마나 멋진 밤이 될까요!"

한때 주일예배 시간에 레슬링 경기를 보여주었던 교회는, 목사들이 이제 프로 레슬링 선수에게 훈련받느라 지경에 이르렀다. 서로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실제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

대한민국 트로트 목사, 예배(*)

40여 년 전 이 책의 근간이 된 시리즈들을 처음 설교했을 때,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요 4:24)는 성경의 표현을 스스로 연구했다. 그것은 그동안 준비했던 어느 설교보다 나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예배의 의미에 대한 내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놓았다.

핵심: 예배를 드라마, 연극, 음악, 스포츠 관람이 참여자의 활동으로 보았다.

예배에 관한 그 설교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암시했다. 우리의 주일예배는 완전히 새로운 깊이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예배 순서, 음악, 기도, 설교, 심지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깊이가 없는 알뜰한 것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예배를 스포츠나 연극 관람이 아니라 참여자의 활동으로 보았다.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를 깨달았다. 홍보, 레크리에이션과 사교적인 활동, 출석률을 높이는 것,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유일하게 믿을 만하고 충분한 예배 설명서인 성경을 계속 가까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예배가 단지 회중의 유익을 위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예배의 모든 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성경말씀에 더욱 전념하게 된 것이다.

솔라스크립투라

1980년경 예배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시편 19편으로 설교했다. 그때 나는 성경의 절대적인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힘 있는 글을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시편19:7-10

이 구절의 핵심은 명확하다. 성경이 인간 영혼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라. 성경의 진리는 죄로 손상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지혜를 주며,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진리와 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딤후3:17).

시편 19편에 관한 설교들은 우리 교회의 삶에 또 다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을 대면하게 되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심리학, 사업, 정치, 홍보, 오락의 영역에서 집단으로 세상적인 전문지식을 의지하는 듯한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틀림없는 영적 진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쳤다.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이 예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예배에 적용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해 주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우리 예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일하게 예배를 규정할 자격이 있으신 분의 명령에 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가장 엄격하게 강요하시는 이 원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조상들의 '솔라스크립투라'에 대한 확신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배와 교회 리더십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유행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말한 대로 일부 교회는 거의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한다. 거룩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용적인 방법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고교회파의 형식주의를 지지하여 단순한 예배형식을 버리는 과거의 복음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복음주의를 완전히 떠나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고 있다. 각종 예배 의식, 성지작 촛불 행렬 등 한편 어떤 교회들은 소란스럽고, 감정적이며, 이성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비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는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이나 펜사콜라 부흥'(Pensacola Revival) 같은 운동의 음성과 쇠퇴 속에서 이 증거를 볼 수 있고, 아니면 '레이크랜드 부흥'(Lakeland Revival)과 우레의 아들들(Sons of Thunder, 그들의 특징은 술에 취한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술취한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같이 더 명확하게 해로운 것들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웃고, 개처럼 짖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닭처럼 꼬꼬댁거리고, 폴짝폴짝 뛰고, 달리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더 심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전해진 증거라고 믿는다.

물론 이런 유행 가운데 확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그 지지자들은 실용적인 주장을 내세우거나 잘못 해석된 참고자료, 수정주의 역사 또는 고대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다. 바로 그런 사고방식을 종교개혁자들은 거부하였다.

트로트CCM, 힙업 CCM 롤큰롤 CCM 등, 헤비 메탈 경배와 찬양의 거의 모든 것들

예배에 솔라스크립투라 적용하기

현대 교회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공예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잠시 생각해 보자. 즉시 네 가지 성경적인 예배의 지침이 떠오른다. 이 지침은 슬프게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것을 회복하면 틀림없이 현대 교회 예배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1. 말씀을 선포하라.

공예배에서 반드시 말씀에 대한 설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향한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딤후4:1-2,

틀림없이 말씀사역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맡은 임무의 핵심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예배의 핵심이었다. 바울은 밤중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다(행 20:7~8). 말씀 사역이 교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나 하면, 누구든 목사로 섬기려면 먼저 자신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만 했다(딤후 2:24; 딤후 1:9 참조).

말씀 강해와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계시에 대한 강해 설교가 없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을 알려 주는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예배 속으로 침범하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둘은 서로 헤어질 수 없다.

설교는 모든 공예배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모든 교회 의식은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또는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드라마, 음악, 코미디 또는 그 외의 활동이 말씀 설교의 자리를 빼앗을 때 필연적으로 참된 예배는 고통을 당한다. 또 설교가 거창한 의식에 예속될 때 그 또한 진정한 예배를 방해한다. 말씀 사역이 없는 '예배' 의식은 그 가치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2. 양떼를 세우라.

성경은, 영적 선물(은사)의 목적이 온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엡 4:11-12; 참조 고전 14:12).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역의 목표는 참된 예배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표현 안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거듭 말했듯이, 예배는 감정뿐 아니라 지성도 사로잡아야 한다. 반드시 예배는 열정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며,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핵심은 생각을 닫고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근거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순수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때로는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지만 그때의 감동은 예배가 아니다. 가사에 담긴 진리와 분리된 음악, 그 자체는 참된 예배의 발판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가슴 아픈 이야기는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으나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의 맥락 속에 있지 않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진정한 예배를 일으키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열정적인 분위기가 반드시 참된 예배라는 증거는 아니다. 가사와 음악 모두가 예배에 합당해야 한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열정적이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의와 공훈과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그로부터 모든 선함과 공훈과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 예배는 그러한 진리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신 진리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예배는 무지의 공백 상태에서 생겨날 수 없다. 그것은 객관적인 말씀의 진리에 자극받아 활성화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을 높이라.

히브리서 12장 28-29절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예배'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는 말을 덧붙인다(29절).

따라서 교회의 공예배 안에는 경솔하고 알팍하고 경박한 분위기가 조성될 틈이 없다. 그런데 종종 포스트모던 코미디 클럽 문화와 관계를 맺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예배를 서커스로 대체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성경적인 예배의 정신과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엄숙한 경외심을 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회 공예배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왜 교회가 주일예배에서 설교와 경배를 익살스러운 연극으로 대체하는가?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기 위해 그렇다고 한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구도자 교회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또 그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모인 신자들을 세우기 위함보다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취향과 입맛에 맞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런 교회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규례들을 거의 혹은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주의 만찬, 침례 등도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중요도에서 밀려난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주일예배를 전도 집회로 사용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주일은 꼭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가?

성경은 초대 교회의 정기 모임이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10:23-25의 호소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고전14:23 참조). 1세기의 교회 모임의 예배는 1차적으로 신자들의 예배와 교제를 위해 계획되었다. 복음 전도는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예배와 교제를 위해 모였고 복음 전도를 위해 흠뻑 땀 흘렸다. 교회가 모든 모임을 복음 전도 집회로 만들면 신자들은 성장하고 세움 받고 예배드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접대하고, 형제들을 즐겁게 해주고, 출석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4.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니라."

바울은 단지 외적으로 할례와 의식 같은 종교의례를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쓸모없는 것,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배설물"(8절)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도 보통 사람들이 '예배'(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개 눈에 보이는 요소, 즉 음악, 의례, 의식, 무릎 꿇기, 그 외의 형식적인 문제들을 생각한다. 최근에 복음주의 기독교를 떠나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된 한 남자의 간증을 읽었다. 그가 복음주의를 버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가톨릭의 예배 의식이 더 경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을 더 듣다보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교는 공식적인 예배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 촛불, 조각상, 무릎 꿇기, 암송, 성호 긋기 등. 그는 그런 것들을 예배와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 성경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며 육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솔라스크립투라의 원칙을 믿는 우리는 그런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경계해야 한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손님을 대접하느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하는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눅10:41~42

요점은 분명했다. 예수님을 흠모하여 그의 발 앞에 앉아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네가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42절)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의 예배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반면 마르다의 분주한 활동은 그날 오후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 주님은 예배가 다른 모든 삶의 활동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활동임을 가르쳐주고 계셨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면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것에 얼마나 더 큰 비중을 두어야겠는가?

세상은 거짓되고 피상적인 종교로 가득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우리는 감히 우리의 예배를 세상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